



정동원 “많이 컸구나 뿌듯해했으면”

3년 4개월만에 정규 2집
‘키다리의 선물’ 발매
“육각형 아티스트 목표”

“팬들이 ‘포맷이인 줄 알았던 정동원이 많이 컸구나’ 하고 뿌듯해하신다면 좋겠어요.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을 팬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가수 정동원(18)이 팬들을 향한 사랑을 가득 채운 앨범 ‘키다리의 선물’을 들고 돌아왔다.

정동원은 13일 서울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열린 정규 2집 ‘키다리의 선물’ 쇼케이스에서 “지난 5년간 키도 146cm에서 177cm까지 컸고, 무엇보다 많은 분의 사랑 덕에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성장한 만큼, 철이 든 만큼, 사랑을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키다리의 선물’은 정동원이 2021년 11월 발매한 정규 1집 ‘그리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후 약 3년 4개월 만에 내놓는 앨범이다.

앨범에는 더블 타이틀곡 ‘흥!’과 ‘꽃등’을 포함해 14개 트랙이 담겼다. 스윙 트로트 장르 ‘쇼 업’(Show up), 록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온리 유’(Only You), 팬을 향한 메시지를 담은 ‘선물’ 등 장르



가수 정동원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열린 두 번째 정규앨범 ‘키다리의 선물’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를 넘나드는 곡을 수록했다.

2019년 데뷔한 정동원은 2020년 13살의 나이로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5위를 차지하며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청소년기를 가수 생활로 바쁘게 보낸 그는 어느덧 20대를 목전에 뒀다.

그는 30cm가량 부쩍 자란 키만큼 음악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졌다고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 부캐(부캐릭터)인 ‘JDI’으로 트

로트 장르를 넘어 아이돌 음악에 도전했던 경험도 ‘육각형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다재다능한) ‘육각형 아티스트’로 가는 길이 0%에서 100%까지 있다고 하면 저는 아직 30%도 못 왔다고 생각해요. 이것저것 장르 불문하고 잘하는 아티스트, 성장하는 육각형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연합뉴스

마약 범죄 액션 영화 ‘야당’ 4월 23일 개봉

“이 사람의 야망을 이해하면서 상황을 같이 풀기까지 느끼고 상황을 뚫고 나갔을 때 통쾌함까지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배우 강하늘이 13일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야당’ 제작보고회에서 영화의 주된 관전 요소를 소개했다.

‘야당’은 마약 브로커 야당과 야망이 있는 검사, 마약 범죄 소탕에 모든 것을 건 형사가 마약 수사를 둘러싸고 얽히는 이야기를 그렸다.

강하늘, 유해진, 박해준 등 탄탄한 배우진에 야당이라는 색다른 소재에 합입어 올해 상반기 한국 영화 중 기대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특수본’(2011), ‘나의 결혼 원정기’(2005) 등을 만든 황병국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야당은 수사기관에 마약 관련 정보를 넘겨주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말한다. 소매치기들이 사용하던 은어가 마약판에서 브로커를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됐다고 한다.

강하늘은 야당 역할을 수행(브로커 역할을 한다는 뜻)하는 이강수를 연기했다.

그는 “이강수라는 인물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살아가는 인물”이라며 “너무 선하지도 않



영화 ‘야당’

강하늘·유해진 주연... 마약판 브로커들의 이야기
황 감독 “마약 위험성 알리고 통쾌함이 남는 영화”

게 너무 악랄하지도 않게 그 중간 지점에 관해 감독님과 상의하면서 촬영했다”고 떠올렸다.

황병국 감독은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이야기하면서 영화로 쓰이게 됐다고 한다. 강하늘은 야당 역할을 수행(브로커 역할을 한다는 뜻)하는 이강수를 연기했다. 그는 “이강수라는 인물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살아가는 인물”이라며 “너무 선하지도 않

유해진도 “어떤 감독님은 (연기 지도할 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데, (황 감독은) 구체적으로 배우의 마음을 알고 표현해 주셔서 편했다”고 떠올렸다.

유해진은 “작품 면에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영화계가) 너무 가무니까 단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다음 달 23일 개봉한다.

연합뉴스

가부장제 코미디 버린 시트콤 ‘빌런의 나라’

이달 19일 수요일 첫 방송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는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아내와 아들을 구박하는 이순재가,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에는 며느리를 차별하는 신구가 있었다.

가족 시트콤 속에는 이처럼 고집이 세면서도 여자가 허술한 아버지가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다음 주 새롭게 선보이는 KBS 시트콤 ‘빌런의 나라’(사진)는 과거 인기작에서 반복적으로 선보이던 가부장적인 캐릭터를 내려놓고,

요즘 사회상에 맞는 여성 중심의 가족상을 보여준다.

연출을 맡은 김영조 PD는 12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가부장제 코미디’를 과감하게 버렸다. 이번에는 자매가 지배하는 가정에 관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주연부터 오나라(오나라 역), 소유진(오유진) 두 여배우다.

서현철(서현철)과 송진우(송진우)가 각각 오나라의 예민한 남편, 소유진의 열정이 넘치는 연하 남편을 연기하고, 박영규(오영규)가 오



나라·오유진의 아빠 역할을 맡았다. ‘빌런의 나라’는 오는 19일 오후 9시 50분 처음 방송된다. 연합뉴스

‘故김새론 교제 논란’ 김수현, 다음주 입 연다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다음 주 입장을 밝힌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3일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근거 없는 루머에 대응하기 위해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 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공지했다.

정확한 입장 표명 방식과 시기,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김새론 유족과의 통화를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15살이였

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1일 불에 뽀뽀하는 사진, 12일 김수현이 2018년과 2019년에 김새론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 등을 공개했다. 편지에는 김새론을 지칭하는 듯한 애칭과 애정 표현이 담겨있었다.

연일 파장이 커지면서 김수현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MBC ‘굿데이’ 시청자 게시판에는 김수현의 하차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계자는



배우 김수현.

김수현의 녹화 불참과 하차 여부에 “확인 중인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취 득
CONGRATULATIONS

서울대학교 농학박사 학위



김준범
부: 김광수(귀덕) · 모: 김옥순(남원)

서울대학교 농학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귀덕초등학교 30회 동창 일동

당 선
CONGRATULATIONS

호근새마을금고 이사장



고학인

호근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형제일동

취 임
CONGRATULATIONS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조직위원장



고문삼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조직위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10인회 회원 일동

당 선
CONGRATULATIONS

용담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상주

용담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방분권제주본부
대표 김기성